



글로벌 경제위기가 독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9년 2/4분기 기업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독일 경제가 유사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측에 따르면, 2009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5.5%에서 -6.5%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에는 -0.5%에서 +0.5%의 경제성장률 혹은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할 경우 +2.5%의 경제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이다.¹⁾ 또한 기업의 매출액 및 주문량 현황에 관한 지표들을 살펴보더라도,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위기의 여파가 미치고 있으며 특히 수출집약적인 업종들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고용연구소에서 「전체 경제의 일자리 공급에 관한 조사 (IAB-Erhebungen des gesamtwirtschaftlichen Stellenangebots)」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표 기업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²⁾ 2009년 2/4분기 경제위기가 독일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실시한 각종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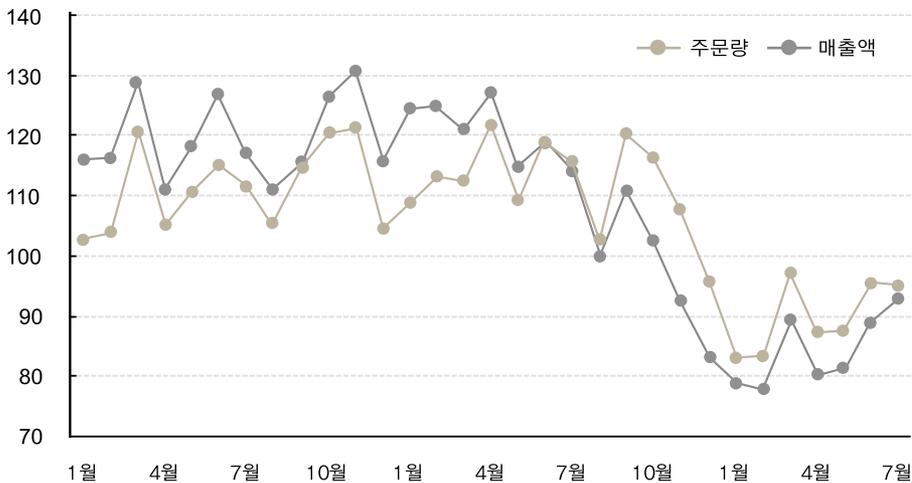
1) Bach et al., Arbeitsmarkt-Projektion 2010: Die Krise wird deutliche Spuren hinterlassen, IAB-Kurzbericht, 20/2009. pp. 1~2.

2) 이번 설문조사에는 약 8,00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하였다.

■ 경제위기가 독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독일 제조업 부문의 주문량 및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월 주문량 및 매출액 수준은 전년대비 약 4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수출이 상당부분 감소했기 때문이며, 수출집약적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 경제의 경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경기위축으로 인한 국내수요가 감소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 수가 약간 증가하고 취업자 수 및 일자리 공급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실시하기보다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운영이나 조업단축의 실시 등을 통해 현재의 고용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조업단축의 확대 실시는 경제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³⁾

[그림 1] 제조업 분야 매출액 및 주문량 변동 현황 (2005년 기준=100)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2.

3) Bach/Spitznagel, Kurzarbeit: Betriebe zahlen mit- und haben was davon, IAB-Kurzbericht, 17/2009, p. 2; Crimmann/Wießner, Wirtschafts- und Finanzkrise: Verschnaufpause dank Kurzarbeit, IAB-Kurzbericht, 14/2009, p. 4.

독일 전체 및 동서독 지역별 분석

기업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체 기업들 중 약 39%가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 중에서 7%의 기업들은 ‘기업 존립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existentiell von der Krise betroffen)’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에는 약 170만 명의 사회보험의무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다. 또한 기업들 중 32%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기는 했으나 기업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은(in Teilbereichen betroffen, aber bislang nicht existentiell)’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에는 약 1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다.

〈표 1〉 2009년 2/4분기 경제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의 영향 (단위: %)	심각한 영향을 받음	부분적 영향을 받음	영향을 받지 않음	전 체
서독 지역	7	33	60	100
동독지역/베를린	7	26	66	100
독일 전체	7	32	61	100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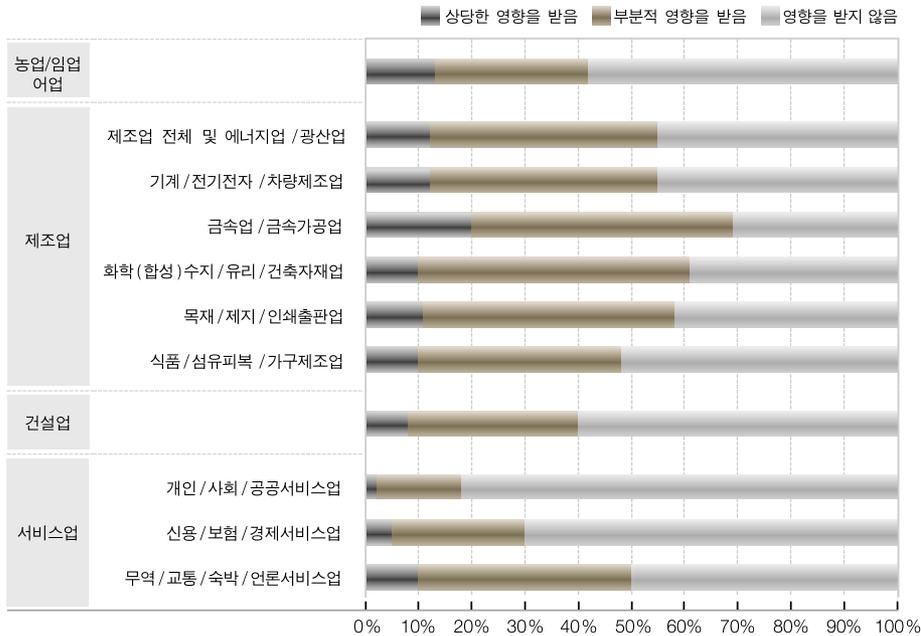
경제위기의 영향 정도를 동서독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제위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동서독 지역의 경우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부분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비율은 서독 지역의 경우 33%로 동독 지역보다 약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독 지역 산업들이 대부분 수출의존적 산업이 많기 때문에 경제위기로 인한 부담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⁴⁾

4) 동독 지역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서독 지역 수준의 약 75% 수준이며, 산업화 정도 또한 서독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Bach et al., Arbeitsmarkt-Projektion 2010: Die Krise wird deutliche Spuren hinterlassen, IAB-Kurzbericht, 20/2009, p. 8 참조.

업종별 분석

경제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은 바로 제조업 부문이다. 아래의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조업 소속 전체 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심각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가장 컸던 업종은 바로 금속 및 금속가공업으로 약 70%의 기업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약 20%의 기업들은 기업 존립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은 화학/합성수지/유리/건축자재 제조업 부문으로 61%의 기업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 10%의 기업들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은 목재/제지/인쇄출판업으로 58%의 기업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11%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2009년 2/4분기 업종별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3.

〈표 2〉 신용 및 보험업, 경제서비스업에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

(단위: %)

경제위기의 영향	심각한 혹은 부분적 영향을 받음	영향을 받지 않음
신용 및 보험업 (1)		
신용업	22	78
보험업	69	31
금융중개업	40	60
경제서비스업 (2)	28	72
전체 (1)+ (2)	30	70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3.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은 무역/교통/숙박 및 언론서비스업으로 약 50%의 기업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10%의 기업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서비스업을 포함한 신용 및 보험업의 경우 기업들 중 약 30%만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용업의 경우 22% 정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나머지 78%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동종 업종 내의 보험업이나 경제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기업규모별 분석

다음으로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기업규모(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리 큰 격차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250인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43%, 50~249인 규모 기업의 경우 46%, 10~49인 규모 기업의 경우 43%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39% 정도가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기업규모별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

(단위: %)

기업규모별	심각한 영향을 받음	부분적 영향을 받음	영향을 받지 않음	전체
1 ~ 10인	7	32	61	100
10 ~ 49인	6	37	57	100
50 ~ 249인	6	40	55	100
250인 이상	7	36	57	100
전체	6	37	57	100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4.

〈표 4〉 경제위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비율

기업규모별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	사회보험의무 근로자비율 (%)
1 ~ 10인	329,000	20
10 ~ 49인	376,000	22
50 ~ 249인	407,000	24
250인 이상	569,000	34
전체	1,681,000	100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4.

특히 경제위기로부터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보험 의무 고용자수 및 고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표 4),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 수는 569,000명(약 34%)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업설문조사가 실시된 2009년 2/4분기에 독일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위기의 여파가 미쳤으며, 이는 업종별 혹은 기업규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금융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으로 말미암아 현재에는 영향이 적게 받는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생산 및 제조업 부문이 경제위기로부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밀접한 산업연관 관계로 인해 기업규모에 따른 경제위기의 영향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은 매출액 및 주문량이 감소하고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자금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이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기극복 수단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자 해고를 통해 기업 비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이 경기후퇴 시기에 근로자들 해고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는 있으나, 이는 차후에 예상되는 경기호황에 따른 인력재수급 및 신규고용에 수반되는 비용과 상당부분 상쇄되기 때문에 최선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업들은 해고 실시 이외에도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조업단축이나 근로시간 조정, 임금삭감 및 신규채용 중단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업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업들이 실시한 경제위기 대처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규채용 중지 (Einstellungsstop)

기업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로부터 심각한 혹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규채용을 중단한 기업들의 비율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경제위기의 영향 정도별로 살펴보면,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85% 그리고 부분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83%가 신규채용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양자간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목재/제지/인쇄출판업의 경우 96%, 기계제조/전자기술/차량제조업의 경우 91% 그리고 식품/섬유피복/가구제조업의 경우 91%의 비율로 신규채용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위기극복 수단

	기업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신규 고객그룹 및 시장확소	신규채용 중지	조업단축 실시	임금감축 및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해고
경제위기 영향을 받는 사업장 전체	56	76	83	17	20	11
업종분류별						
제조업 전체, 에너지업 및 광산업*	56	85	90	38	26	16
식품 및 섬유피복업, 가구제조업*	52	83	91	23	23	13
목재 및 제지업, 인쇄출판업*	62	89	96	33	30	16
화학, 합성수지, 유리 및 건설자재 제조업*	56	87	84	33	22	20
금속제조업*	61	87	87	51	29	21
기계, 전자 및 차량제조업*	52	83	91	46	24	14
무역 및 교통업, 숙박 및 언론서비스업	55	72	85	10	21	8
신용 및 보험업, 경제서비스업	55	86	74	13	16	10
개인서비스업, 사회 및 공공서비스업	54	71	79	4	21	9
기업규모별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						
1 ~ 10인	53	74	86	14	19	9
10 ~ 49인	63	84	78	26	24	17
50 ~ 249인	66	82	66	41	29	21
250인 이상	62	84	49	55	34	28
경제위기의 영향정도별						
심각한 영향을 받음	56	71	85	19	29	24
부분적 영향을 받음	55	77	83	17	18	8

주 : * 제조업 부문.

** 조업단축과 연관없는 근로시간 단축.

출처 :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5.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결과를 살펴보면, 신규채용 증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빈번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86% 그리고 근로자 수가 10~49인 기업들의 경우 78%가 신규채용을 중단한 반면, 50~249인 기업규모의 경우 66% 그리고 250인 이상인 경우 49%로 나타나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신규채용 증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해고 (Entlassungen von Mitarbeitern)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는 사례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해고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2009년 2/4분기에 경제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 단지 11%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존립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해고실시 비율은 24%로 부분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보다 해고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고실시 여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해고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속업으로 2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화학/합성수지/유리/건축자재 제조업이 20% 그리고 목재/제지/인쇄출판업이 16%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250인 이상)들의 경우 해고실시 비율이 28%로 10인 이하 소기업의 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해고라는 수단을 빈번히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해고실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지난번 경기호황때의 경험에서 나온 기업들의 반응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당시에 기업들은 경기호황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다.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가 지나가고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예전과 같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고용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적 측면에서도, 해고실시를 통해 절감된 인건비는 차후에 신규채용시 발생하는 비용과 상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이득이 될 것

이다. 그렇지만, 경기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될수록 기업들이 해고를 실시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조업단축 실시 (Kurzarbeit)

조업단축은 대량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가 집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온 위기극복 수단이다.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의 확대지원을 위해 조업단축급여의 수혜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시켰으며, 조업단축의 실시와 연관된 제반 행정 절차들을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조업단축의 촉진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다.⁵⁾

연방노동국(BA)은 근로자들에게 조업단축으로 인해 상실된 임금의 60%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67%)까지 조업단축급여(Kurzarbeitergeld)를 지급하고 있으며,⁶⁾ 사용자들에게는 조업단축을 실시한 7개월차부터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전부를 보조해 주게 된다. 또한 조업단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규 신청이 불필요해지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매우 간소화되었다.⁷⁾

기업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 약 17%가 2009년 2/4분기에 조업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는 전체 사회보험의무 근로자의 약 17% (460만 명)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의 영향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제위기로부터 심각한 혹은 부분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는 조업단축 실시비율이 각각 19%, 17%로 나타

5) 물론 정부 차원의 조업단축 지원정책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임금비용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임금부대비용이나 감가상각액을 비롯한 기타 잔존비용(Remanenzkosten)을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조업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총 140억 유로의 비용 중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ch/Spitznagel, IAB-Kurzbericht, 17/2009, p. 8 참조).

6) 조업단축급여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규영, 「독일의 조업단축에 관한 노동법·사회보험법적 규정」, 『국제노동브리프』, Vol. 7, No. 3, 한국노동연구원, 2009. 03을 참조할 수 있다.

7) Crimmann/Wießner, IAB-Kurzbericht, 14/2009, p. 1.

나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에 연방노동국에서 발간한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5월 조업단축 실시 근로자 수는 153만 3,579명으로 1월의 57만 4,407명에 비하면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⁸⁾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조업단축 실시가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특히 금속업의 경우 조업단축 실시비율이 51% 그리고 기계설비/전자기술/차량제조업의 경우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조업단축 실시비율은 개인/사회/공공서비스업의 경우 4%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25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55%가 조업단축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단지 14%만이 조업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업단축은 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위기대처 수단인 것을 알 수 있다.⁹⁾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모든 기업들 중 11%가 조업단축과 상관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미 합의하였거나 혹은 이에 대해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나 경영위원회)와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조업단축과 다른 점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손실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용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임금삭감 (Lohnkürzungen)

기업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2/4분기까지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 12%가 시간당 임금을 감소시키는 등 임금삭감을 실시하였거나 혹은 현재 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경우 임금삭감 실시비율은 29%로 부분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18%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는 임금삭감은 기업의 직접적인 임금비용을 절감하거나

8)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September 2009, p. 56.

9)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의 중지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위기대처 수단이었다.

혹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곤 한다.

다음으로, 임금을 삭감했는지 혹은 근로시간을 단축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기업들은 단지 3%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기업들 중 약 20%가 임금삭감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거나 혹은 이에 대해 근로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많이 실시한 업종은 목재/제지/인쇄출판업으로 30%이며, 그 다음으로 금속업이 29%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용/보험/경제서비스업의 경우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비율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250인 이상인 대기업에서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는 34%로 이는 중소기업의 1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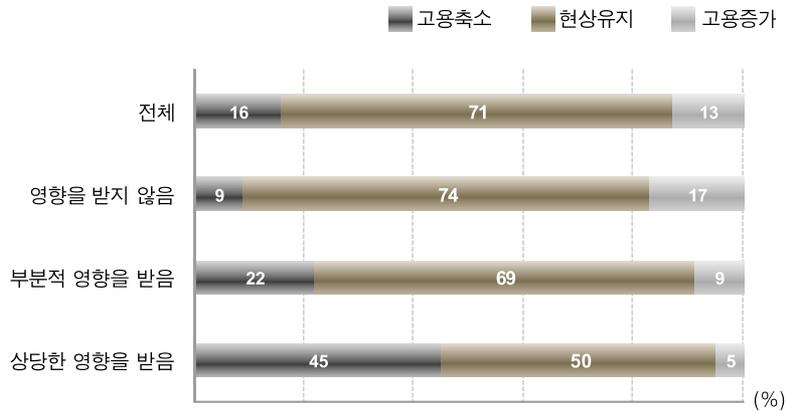
기업구조 변경, 신규 고객 및 시장 축소, 사업장 폐쇄

기업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전체 기업들 중 76%가 주문량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고객그룹이나 신규 시장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56%의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나 기업 합리화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는 전체 기업들 중에서 단지 2%만이 자신의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에는 약 22만 명의 사회보험의무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었다.

■ 향후 기업의 고용계획 및 전망

2009년 2/4분기에 실시된 기업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향후 12개월간 고용전망은 그리 비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기업들 중 16%는 앞으로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13%의 기업들은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대다수 기업들은(71%) 앞으로의 고용상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림 3] 기업의 향후 고용전망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7.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45% 정도가 앞으로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고용전망은 경제 위기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되며 이로 인해 개별 기업들이 받는 영향의 정도에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추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으로 인해 1년이 지난 2009년 2/4분기에도 독일 내 전체 기업들 중 약 40%가 심각하던 혹은 부분적이던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파급효과는 비단 금융권이나 수출산업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다양한 처방책을 강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해왔다. 더욱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실시나 사업장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보다는 신규채용 중단, 조업단축 그리고 임금삭감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재의 고용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수단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앞으로의 고용전망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고용상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여 기업들의 고용전망이 그리 비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진적인 노동수요 감소추세와 불확실한 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나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 Bach, Hans-Uwe/Hummel, Markus/Klinger, Sabine/Spitznagel, Eugen/Zika, Gerd, Arbeitsmarkt-Projektion 2010: Die Krise wird deutliche Spuren hinterlassen, IAB-Kurzbericht, 20/2009.
- Bach, Hans-Uwe/Spitznagel, Eugen, Kurzarbeit: Betriebe zahlen mit- und haben was davon, IAB-Kurzbericht, 17/2009.
-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September 2009.
- Crimmann, Andreas/Wießner, Frank, Wirtschafts- und Finanzkrise: Verschnaufpause dank Kurzarbeit, IAB-Kurzbericht, 14/2009.
- Heckmann, Markus/Kettner, Anja/Pausch, Stephanie/Szameitat, Jörg/Vogler-Ludwig, Kurt, Unternehmensbefragung im II. Quartal 2009: Wie Betriebe in der Krise Beschäftigung stützen, IAB-Kurzbericht, 18/2009.
- 이규영(2009), 「독일의 조업단축에 관한 노동법·사회보험법적 규정」, 『국제노동브리프』, Vol. 7, No. 3, 한국노동연구원.